

건강·의료



김관천 암센터 교수가 30대 여성의 유방암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맘모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유방암 첨단 검사 '맘모톰'

통증·흉터 없이 20분만에 끝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드물었던 질병인 유방암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되었다. 비교적 생활 여건이 좋은 선진국 여성들에게 많이 걸리는 유방암은 다른 암과 달리 초기에 발견될 경우 80~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다. 즉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유방암 환자는 미국 등 서구에 비해 발생 연령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유방암이 서구에서는 60대 이상의 고령환자에게 많으나 우리나라에서는 30, 40대 여성들이 주를 이룬다. 이 때문에 20대 후반부터 촉진에 의한 자가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본인의 촉진만으로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의의 촉진과 유방 촬영술, 초음파 등 검사에서 멍울처럼 느껴지는 것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기존의 수술 검사에서는 멍울이 양성으로 밝혀지더라도 여성들이 유방에 상처가 남아 심리적 후유증이 컸으며 전신 마취와 3~7일간의 입원치료가 불가피

해 경제적 부담도 컸다. 최근에는 맘모톰을 이용해 흉터 없이 더욱 정확하게 조직검사를 할 수 있다. 맘모톰 검사는 유방 멍울에서 3~4cm 떨어진 곳에 부분 마취한 뒤 약 4mm 크기의 구멍을 뚫은 다음, 초음파를 보며 맘모톰의 주사 바늘을 멍울 아래에 삽입해 멍울 조직을 잘라내는 최첨단 기법이다. 맘모톰을 이용하면 약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통증이나 흉터가 거의 없이 정확하게 검사가 이루어진다. 또 충분한 양의 조직을 얻을 수 있고, 양성종양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직접 제거할 수도 있다. 또한 맘모톰 조직검사는 입원하지 않고 검사 후 당일 바로 퇴원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수년간 맘모톰 수술을 했던 유방전문의들은 "유방 상실의 두려움과 수술의 공포감 때문에 조직검사를 꺼리던 여성 환자들이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어 맘모톰 검사가 유방암 사망률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움말=김관천 조선대병원 암센터 교수>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유방암 유전자, 비만·고지혈증도 유발

가톨릭대 김진우교수팀 밝혀내

유방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가 비만과 고지혈증도 유발한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김진우교수팀(하선아 박사)은 유방암을 유발하는 'HCCR-1' 유전자를 주입한 형질전환 생쥐 500여 마리를 3년간 관찰한 결과, 이들 쥐의 90% 정도에서 심한 고지혈증과 고도비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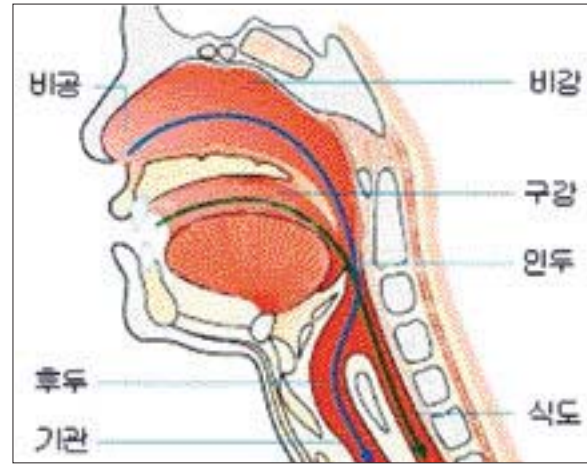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고지혈증·고도비만 발생률은 대조군 정상 쥐의 2~3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HCCR-1' 유전자가 몸속 정상 지질단백질인 '아포지질단백질E' 결합함으로써 아포지질단백질의 정상적 기능을 인체내 콜레스테롤 억제 효과와 유방암 세포 성장억제 효과를 저해하기 때문이 이 같은 질환이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필뉴스

광주일보·전남지역암센터 공동기획 암을 이기자!

입안 궤양 3주 이상 지속면 정밀검사 필요

두경부종양은 후두, 구강, 구인두, 비강, 부비동, 비인두, 하인두, 타액선, 갑상선 등의 신체부위에서 발생하는 종양이다. 발생 부위가 포괄적이어서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으나 한국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후두암 환자가 1천100여명, 구강암 환자 800여명이 새로 발생한다고 한다. 두경부 종양은 다른 종양과 달리 초기에는 수술 이외에 방사선 요법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며 진행성 병변인 경우 방사선과 항암요법의 동시치료 및 수술이 동원돼 치료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두경부 종양은 왜 생기는가?> 가장 많은 원인으로 흡연과 음주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두경부종양 발생 위험이 5~25배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하는 경우 상호작용이 있어 발생위험이 더 크다. 비인두암인 경우 바이러스 감염(Ebstein Barr Virus)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주로 동남아시아, 중국에서 높은 발현율을 보인다. <증상과 진단>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즉 6주 이상 지속되는 목소리 변화, 3주 이상 낫지 않는 구강내의 궤양 또는 부종, 구강 점막의 적백색 반점, 3주 이상 지속되는 연하(음식물을 삼켜서 넘김)곤란, 한쪽 코가 지속적으로 막혔거나 이상한 분비물이 동반될 때, 치주질환과 무관하게 치아가 흔들리는데 그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울 때, 3주 이상 지속되는 목 부위의 종괴, 3주 이상 지속되는 한쪽의 귀 충만감 등이 있을 때이다.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나 구강의

◇두경부 종양 발생 부위



흡연과 음주가 가장 큰 원인 초기 발견 방사선 완치 가능 비타민 A·C 섭취 예방 도움

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가능하면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치료> 두경부종양은 방사선과 항암 화학요법, 수술 등

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초기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다면 수술을 시행한다. 그러나 병변의 위치에 따라 수술 후 음성소실 또는 연하곤란, 미용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며, 초기인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 종기가 완전히 소실되면 치료를 종결할 수 있으나 잔존 종양이 남아있다면 수술적 절제를 시행하는 것이 완전을 상시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유도화학요법이라는 항암요법이 일부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방사선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항암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종괴를 최소화해 이후 진행되는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방사선 치료 전에 항암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장기나 주변 림프절로 진행되고 있는 미세전이를 소실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치료가 종결된 환자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재발유무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재발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방> 금연 및 금주는 가장 확실한 두경부종양의 예방법으로 흡연은 두경부종양 이외에도 다른 부위의 암, 즉 폐암, 식도암,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등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두경부종양의 예방 뿐 아니라 건강을 고려한다면 필수항목이다. 이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곡물을 많이 섭취하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 역시 두경부종양 예방의 중요한 습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성희 화순전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목둘레 늘어나면 심장병 위험

美심장·폐 연구소 프라이스 박사 분석 결과

복부지방, 내장지방만이 아니라 목둘레의 지방이 늘어나도 심장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의 새러 로스너 프라이스 박사는 프래밍햄 심장건강조사(FHS)에 참여하고 있는 남녀 3천320명(평균연령 51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말한 것으로 영국의 BBC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다. 프라이스 박사는 목둘레가 늘어날수록 심장병의 위험요인인 양성 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의 감소와 혈당상승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평균 목둘레는 남성이 40.5cm, 여성이 34.2cm였으며 여기서 3cm가 늘어날 때마다 혈중 HDL수치가 남성은 2.2mg/dL, 여성은 2.7mg/dL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DL수치가 남성과 여성이 각각 40mg/dL과 40mg/dL이하이면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목둘레가 3cm 늘어날 때마다 혈당이 남성은 3.0mg/dL, 여성은 2.1mg/dL 각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필뉴스

화순전남대병원 '해외환자 모의진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해외환자치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해외환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해외환자 모의진료'를 실시한다. 지난 1월 외국인환자진료위원회가 결성됐고, 이번 모의진료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세부 계획을 수립해 준비해왔다. 이번 모의진료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생할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진료체계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모의진료는 해외환자의 진료상담에서부터 외래 진료, X-Ray 촬영, 입원수술, 퇴원수술에 이르기까지 병원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병원측 병원장은 "해외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모의진료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 점검할 것"이라며 "해외환자진료 관련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산가 광주지사' 아토피 건강교실

인산가(죽염제품 메이커) 광주지사가 아토피와 기관지천식, 비만 등 날로 증가하는 어린이 질병 치료를 위한 무료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인산가 광주지사는 이날 말까지 매일 오후 4시~6시 광주시 남구 봉선동 인산빌딩 1층에서 어린이건강교실을 열고 있다. 강사는 민중의술 광주전남연합회 김갑표 회장이 맡는다. 김 회장은 각종 질병의 원인과 건강상식, 치료 방법 등을 강의한다.문의는 062-651-1175~6. /채희종기자 chae@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Tour 38th Anniversary and Gwangju City 2nd Anniversary. Includes Lotte Tour logo, phone numbers, and a grid of travel packages with prices and dates.